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 전통 떡살문양을 중심으로 -

배 천 범 · 하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오늘날 한국 패션산업은 개화기 이후 우리의 복식 생활 자체가 서양화되면서 외국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함께 단절되었던 전통성을 복원하여 현대의 시점에서 재창조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이에 현대에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통요소를 응용한 디자인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대 복식의 한 분야인 웨딩드레스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원래 서양의 신부의상인 웨딩드레스는 오늘날의 보편화된 결혼 예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입된 시기에 비해 그 발달과정은 일반복식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특히 웨딩드레스는 디자인과 소재 면에서 전적으로 외국의 모방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의 문물의 도입과 함께 들어 온 서양의 결혼 예복인 웨딩드레스가 한국적인 독창성의 노력 없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전통양식은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서 과거에 시종해서는 안되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연속의 원리' 아래 현대라고 하는 시대 감각에 의해 재창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옛날 그대로의 전통적인 개념이 부활 또는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양식이 현대적인 감성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도록 재정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식 웨딩드레스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통성의 단절과 무비판적인 서구식의 답습이라는 디자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통성의 기반 위에 한 요소로서 문양면에서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목재 떡살문양으로부터 디자인의 모티브를 추출하였고, 그 독창성과 보편성을 통한 창의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첫째, 한국 웨딩드레스의 도입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서구식 웨딩드레스가 일반화된 1950년대 중반 이후를 '현대'로 보고, 현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통의 모티브로서 문양의 보고(寶庫)이자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지니고 토착화된 떡살문양을 택하여 그 종류와 조형적 특징을 분석했다. 셋째, 떡살문양을 응용한 현대 복식과 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사례를 전통요소인 형태, 소재와 문양, 색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중 문양면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디자인의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입장과 연구대상을 전제로 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문제를 현대복식의 한 분야인 웨딩드레스 영역에 확대시켜, 사구 지향적이던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 목재 떡살문양을 응용해 한국적이고 서구의 복식형태에 전통의 모티브가 부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목재 떡살문양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 모티브로서 창안해 왔으며 그 조형성이 반복과 대칭에 의한 율동감을 지니며,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감각으로 인해 창조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현대 복식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통 자수기법, 현대 자수기법, 프린트 기법, 누빔 기법, 비딩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떡살문양의 조형적 특징인 직선과 곡선의 문양을 반복시켜 율동적인 패턴을 연출할 수 있었다.
4. 여러개의 문양이 조합되어 응용의 변화가 무한한 목재 떡살의 여성적이고 곡선적인 식물문과 직선적인 기하학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문, 동물문의 응용과 기하학적 문양과의 복합적 시도로 전통문양의 현대적 표현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